

무안서 최악의 항공 참사... 탑승객 179명 사망



전남소방대원 등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 충돌... 2명 구조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원인 등 규명 나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폭발해 17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도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기 기체는 활주로를 이탈해 주변

시설물인 외벽에 충돌하며 반파됐고 폭발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사무장 2명, 일반 객실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한국인 승객은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인 것으로 잠정 분류됐다.

사고 직전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여객기는 랜딩기어(바퀴)를 내리지 않고 활주도로에 기체를 끌며 착륙을 시도했다. 해

당 여객기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8시 20분께 착륙 준비 도중 지상 200m 상공에서 새데와 충돌해 우측 엔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잇달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탑승자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 태세를 가동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조사팀은 여객기참사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국토부 조사위는 여객기의 조류 충돌 여부, 랜딩기어 등 기체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2·3·4·5·6·7면

민원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전남일보의 비극적인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를 잃으신 유가족을 비롯한 여러분의 깊은 슬픔과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일보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을 기리며 이번 참사가 남긴 상처를 함께 공감하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남일보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 슬픔을 나누고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과 지원이 신속히 전달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전남일보 임직원 일동